

美社出願 遺傳工學特許 거절

美제네테크社 4件.....캘리포니아大 2件도

特許廳은 美 제네테크社와 캘리포니아大學이 국내에 出願한 기초 遺傳工學 기술을 거절사정함으로써 物質特許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特許廳에 따르면 美 제네테크社가 出願한 「세균숙주의 형질전환에 적합한 재조합클로닝 벡터의 제조방법」 등 4件的 特許出願에 대해 최근 거절사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캘리포니아大學이 出願한 「필요로 하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배열의 純度を 측정하는 방법」 등 2件的 出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절사정함으로써 알려졌다.

지난 2年동안에 걸쳐 韓·美 양국간의 特許登錄 문제로 관심을 모아왔던 6件的 유전공학 기초기술에 대해 特許廳이 遺傳工學 연구조합측의 異議申請을 받아들여 거절사정함에 따라 관심을 끌고있다.

遺傳工學 연구 조합측은 美제네테크社가 出願한 4件的 特許가 公告되자 本件 出願전에 받

행된 사이언스誌에 이미 공지돼 신규성이 없음으로 特許될수 없다고 異議申請을 제기한 반면 제네테크社는 韓·美 우선권 협정체결 이후에 出願한 것이므로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대해 特許廳은 特許請求 범위를 축소하라는 보정지시를

出願인에게 했으나 出願인이 불복함으로써 거절사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遺傳工學 관련제품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 6가지 기본기술이 거절사정된것과 관련, 관계자들은 앞으로 導入될 微生物 特許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遺傳子銀行·生物檢定센터 設立

物質特許補完策 일환 90년까지 38億투입

政府는 物質特許制度 導入에 따른 補完策의 하나로 오는 90年度까지 모두 38億원을 투입, 9백20명 규모의 시설을 갖춘 遺傳子銀行과 生物檢定센터를 KAIST의 遺傳工學 센터에 設立할 方針이다.

遺傳子銀行 및 生物檢定 事業計劃(案)에 따르면 物質特許導入으로 인한 國內業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生物工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해 내년부터 90년까지 設置費 14億원·人力養成費 2億원, 運營費 22億원 등 모두 38億원을 들여 박사 13명을 포함한 54명의 專門人力을 갖춘 遺傳子銀行과 生物檢定센

터를 遺傳工學센터에 設立·運營키로 했다.

새로 設計되는 遺傳子銀行의 경우, 박사급 6명을 포함한 24명의 專門人力과 3백평의 시설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전반적인 産業用 균주 및 기초연관계 균주의 蒐集·保管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할 計劃이다.

한편 7명의 박사급을 포함한 30명의 專門人力과 6백20평 규모로 設치되는 生物檢定센터는 實驗動物品種의 계통유지와 보존사업을 위한 實驗動物品種의 遺傳學的 研究와 國際적으로 공인된 實驗動物을 導入·育成 및 공급토록 할 方針이다. <☞>

工業所有權 研修는

先進企業의 根幹